

가평군농협 원로조합원에게 4만2천 여장 마스크 무료 지원

가평군농협(조합장:최승수)은 9월7일 관내 원로조합원(1941년 이전 출생자)에게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고 코로나19에 취약한 관내 원로조합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을 드리고자, 원로조합원 833명에게 1박스(50장)씩 총 41,650장의 마스크를 지원 하였습니다.

최승수 조합장은 무엇보다도 가평군농협의 조합원 및 모든 농업인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장기적인 불황에 직면하여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, 청정가평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,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.

아울러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농작물관리와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.

이번에 지원하는 마스크는 각 영농회담당자가 개별적으로 9월 11일까지 최소한의 인원으로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.

